

대기업 돈 물리는데 중기는 자금난… 시장 부익부 빈익빈

대기업 유상증자 5조7943억 달해
회사채 발행액 1조9923억 감소
증권사 공모대행 대기업에 쏠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2조 918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최종 경쟁률은 약 2대 1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시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성과 비전에 대해 얼마나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입증한 사례”라며 “우리사주·기존주주 청약률(99.59%)은 내부 구성원의 책임 있는 참여와 기존 주주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잇단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켈백스앤카엘은 지난해 11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연구개발을 위한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정정 요구가 있었고 납입 일자의 지연이 예상됐다. 이에 회사는 시장에서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자금 조달 방안을 변경했다.



금융감독원.

증시가 활황세를 이어가지만 자본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에 돈이 물리면서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도 대기업에 비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자금조달의 삼중고를 겪는 셈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올해 기업의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

은 289조95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938억원(1.0%) 증가했다.

주식 발행 규모는 13조7065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8860억원(55.4%) 늘었다. 증가분 대부분은 유상증자에서 나왔다. 유상증자는 72건, 10조3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3268억원(113.3%) 급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조9000억원), 삼성SDI(1조7000억원), 포스코퓨처엠(1조1000억원) 등 대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이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유상증자는 5조7943억원(219.7%)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4675억원

(22.6%) 감소했다.

기업공개(IPO)는 위축됐다. 지난해 IPO를 통한 주식 발행액은 3조6763억원(98건)으로 전년 대비 4408억원(10.7%) 줄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2조 3764억원으로 15.9% 감소한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조2999억원으로 0.7% 늘었다.

회사채 발행액은 276조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9923억원(0.7%) 감소했다. 일반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각각 53조1260억원, 19조4447억원으로 늘었지만, 금융채가 줄며 전체 발행 규모를 끌어내렸다. 일반회사채의 경우 차환 목적 발행 비중이 79.6%로 확대된 반면, 시설·운영자금 목적 비중은 축소됐다.

신용등급별로는 ‘AA’급 이상 우량물 비중이 70.7%로 전년보다 확대됐다. 저신용 등급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우량 신용등급은 대기업이기에 이는 곧바로 회사채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양극화로 이어진다.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코스피 상황에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투자등급 기업은 자금조달이 원활해졌지만 투기등급 기업은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수익률이 높은 저등급 기업 회사채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일부 있지만 아직 회복세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대행사를 찾지 못한 점도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따른 증권사들의 공모 대행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린 게 사실”이라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증권사 사정은 당연하겠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은 공모조차 받아줄 곳이 없어 자금조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은 크게 늘었다. CP와 단기사채 발행액은 1663조 3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조7993억원(27.6%) 증가했다. CP 발행액은 503조1909억원으로 15.6% 늘었고 단기사채는 1160조1333억원으로 33.6% 급증했다. 일반 CP와 일반 단기사채가 각각 13.0%, 33.4% 증가한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ABCP는 11.3% 감소했다. 고금리와 경기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장기 조달보다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키움증권, 작년 당기순익 1조 첫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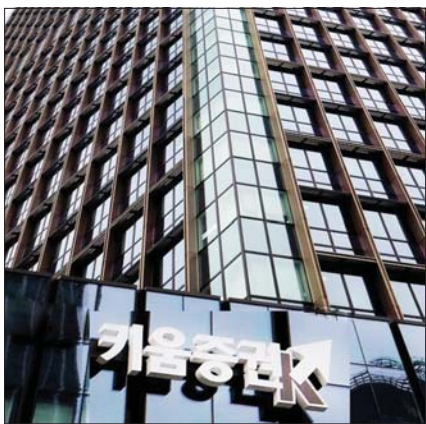
전년비 35.5% 증가한 1조4882억
위탁매매·기업금융 부문 동반 성장

키움증권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4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1.8% 불어난 17조1217억원, 당기순이익은 33.5% 증가한 1조1150억원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2024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2021년 이후 3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했으며, 지난해에도 1조원 대를 유지했다. 더불어 당기순이익이 1조원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키움증권 전경.

영업이익은 34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469억원으로 68.8% 늘었다.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위탁매매(브로커리지)와 기업금융(IB) 부문의 동반

성장이다.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주식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9% 늘어난 230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미국 증시 활성화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리테일에 강한 키움증권이 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IB 부문의 성장세도 주목된다. 4분기 IB 수수료 수익은 8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큐리오시스 기업공개(IPO)와 L S전선 유상증자를 비롯해 SK, KT, 한진칼, 우리금융지주, 한화시스템, HL홀딩스, 연합자산관리 등의 회사채(DCM) 발행을 수행했다. 더불어 본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인수합병(M&A)인수금융을 다수 주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 장기성장펀드 순자산 3200억

최근 1년 수익률 172.95%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장기 성장포커스펀드’의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4일 기준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펀드’의 순자산은 3200억원이다. 2018년 말 순자산 50억원 수준에서 7년여 만에 32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펀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 가운데 성장성과 기술력을 갖춘 성장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다. IT 업종을 비롯해 다양한 성장 산업 전반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며,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일반적인 벤치마크형 펀드와 달리 약 30개 내외의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 및 개별 기업 여건에 따라 적극적인 편출입을 통해 액티브 운용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4일 기준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72.95%로, 벤치마크(코스피) 대비 57.46%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장기 성과 측면에서도 최근 3년 수익률은 169.70%, 5년 수익률은 132.33%로 모두 벤치마크를 상회했다.

/허정윤 기자

증권선물위, 회계부정·부실감사시 퇴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발표
5년간 국내 상장사 임원 취업 불가

앞으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질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증권선물위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회계 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주도·지

시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해임·면직 권고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상장사는 해당 인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재임 중인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을 거부한 상장사와 제한 대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현저히 줄인 감사인은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부실감사가 확인될 경우 정부가 감사인을 교체한다. 부실

감사를 사실상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들여다본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제외접수뿐 아니라 상장사 감사제한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새로 도입된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도 정상화된다. 자산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는 2026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100% 적용하고,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부분적용을 유지하고, 자산 200억원 미만 기업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허정윤 기자

카카오페이증권 예탁자산 10조 넘었다

1년 새 155%↑… 신규 자금 유입 커

카카오페이증권의 예탁자산이 지난 1월 기준 10조원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리테일 사업 기반이 본격적인 규모 단계에 진입했다며 회사의 예탁자산을 4일 밝혔다.

예탁자산은 국내외 주식 평가금액과 원화·외화 예수금, 펀드 자산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증권사의 리테일 사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예탁자산을 주요 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비즈니스 기초 체력으로 관리해 왔다.

지난해 1월 일평균 예탁자산은 4조원

수준이었으나 1년 만에 10조원을 넘어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시장 가격 상승보다는 신규 자금 유입이 중심이 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식 평가금액 증가분 중 신규 자금 유입에 해당하는 순매수 비중은 85%에 달했다.

자산 구성도 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예탁자산 비중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예수금 ▲펀드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식 비중이 비슷한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주식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흐름이 관측된다.

/허정윤 기자